

【논 문】

## 해방 이후 재만조선인사회의 동향

손 춘 일\*

### ■ 차 례 ■

1. 머리말
2. 광복 직후 재만조선인들의 선택
3. 해방 초기 사회주의건설에서 조선족사회의 발전
4. “문화”대혁명에서 조선족사회의 수난
5. 중국개혁개방정책속에서 조선족사회의 변화
6. 맺는 말

### 1. 머리말

근래 적지 않은 사람들은 현 중국조선족사회를 “위기”, 또는 “붕괴” 직전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문화대혁명”이후 중국에서 개혁개방정책, 특히 시장경제정책을 도입한 이래 조선족사회에 나타 난 많은 급격한 변화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요즘 중국조선족사회는 확실히 인구가 줄고 민족교육이 흔들리고 있으며, 중국조선족사회의 근간으로 되어 있던 농촌사회도 점점 소실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런 현상만 가지고

\* 中國 延邊大學 教授

중국조선족사회를 “위기”에 처하여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중국조선족은 광복 후, 만주지역에서 “정치토비”들이 기승을 부리던 그 험난한 시기와 열악한 사회 환경을 극복하고 여전히 만주를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이다. 특히 해방 후에 중국사회주의건설에서 중국공산당이 일으킨 각 종 정치운동이 조선족사회에 파급되어 수많은 시련을 겪어 왔지만 여전히 슬기롭게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자기 민족정체성을 지켜 왔다. 이는 무시할 수 없는 경험이며 또한 금후에도 조선족사회가 당면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본 문은 해방 전후에 중국조선족사회가 어떤 시련을 겪어 왔는지 역사의 흐름에 따라 그 줄거리를 살펴보려 한다.

## 2. 광복 직후 재만조선인들의 선택

항일전쟁이 결속된 후, 중국 국공 두 당이 만주지역을 쟁탈하려는 국면이 날로 가중해 짐에 따라 재만조선인들은 이런 복잡한 형세하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신중한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당시 재만조선인들 앞에는 네가지 선택이 있었다. 첫째, 중국공산당을 따라 만주지역에 잔류하는 것; 둘째, 장개석과 국민당을 따라 중국 국내전쟁에 참가하는 것; 셋째, 북조선에서 들어가 새 국가를 건설하는 것; 마지막으로 남한으로 돌아가는 것 등이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재만조선인들은 계층, 성분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에 따라 서로 다른 정치적 취향에 의하여 스스로 미래를 선택해야 하였다.

광복 직후 국공 두 당의 대재만조선인정책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그

결과 만주지역에서 국민당이 지배하는 “수복구”와 공산당이 지배하는 “해방구”에서의 재만조선인들의 선택은 완전히 달랐다.

우선 재만조선인에 대한 국민당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었는데, 이는 만주국시기 일본의 이간도발로 재만조선인과 중국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심각한 민족모순과 갈라 놓을 수 없다. 이에 양심을 품은 국민당은 광복 직후 재만조선인을 일괄적으로 “한교”로 취급하고 만주에서의 영구적인 거주를 거절하였다. 따라서 광복 직후 국민당은 경제, 정치, 문화 등 여러 면에서 재만조선인에 대해 중국인과 차별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특히 재만조선인 재산에 대한 압수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사실상 이것은 재만조선인을 한반도로 강제 송환하는데 그 목적을 둔 것이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장개석은 항일전쟁승리 직후 즉시 만주국시기 만주에 이주했던 조선개척민들을 기한 내에 한반도로 귀환할 것을 지시하였다. 1946년 4월, 동북보안사령장관사령부는 『한교를 처리하는 임시방법』을 반포하고 만주지역에서 “한교”를 한반도로 송환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규정했다.

다음 국민당 동북행원은 재만조선인들을 상대로 두 차례의 송환 활동을 벌렸다. 제1차는 1946년 12월이었고 제2차는 1947년 10월이었다. 그 결과 국민당의 “수복구”에 거주하였던 많은 재만조선인들이 한반도로 귀환하게 되었다. 어쨌든 국민당의 이런 정책으로 말미암아 광복 후 한반도로 돌아간 재만조선인은 부지기수였고 재만조선인 인구도 원래의 230만으로부터 130만으로 줄게 되었다.

중국공산당의 대재만조선인정책은 국민당과 완전히 달랐다. 중국공산당은 1928년에 있었던 제6차 전국대표대회이래 줄곧 만주지역에 정착한 조선인들을 중국정내의 소수민족으로 간주하여 왔다. 따라서 광복 후에도 재만

조선인을 여전히 중국소수민족의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해방구”에서 민족 평등정책을 실시하였다. 이것이 바로 “해방구”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재만조선인들이 계속 동북에 잔류하고 한반도로 돌아 가지 않은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되었다.

광복 직후, 중국공산당은 우선 재만조선인의 성격에 대해 지적하기를 “1945년 9월 말, 중공중앙 동북국에서 이미 동북조선민족문제를 주의하고 있었으며, 화북에서 항전에 참가한 의용군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중국경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북조선인들을 중국경내의 소수민족이라고 여겨왔다. 장춘에서, 초기의 吉合兩省地區 당위, 그 후의 길림공위와 길료성위는 바로 이 정책으로 조선인들을 령도하였다”. 그리고 “당이 비록 현재 새 환경에서 조선민족의 지위를 명확히 선포하지는 않았지만 실제상 조선인—소수민족이란 평등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꼭 발전해 나갈 것이다”고 명백히 지적하였던 것이다.<sup>2)</sup> 이는 해방초기부터 중국공산당은 중국조선족의 사회지위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인식하에 중국공산당은 해방전쟁시기에 또 재만조선인들의 민족적 감정을 헤아려 그들이 법적으로 어떤 국적을 선택하든지 알가알부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재만조선인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였다. 1946년 1월1일, 연변전원공서부 전원인 동곤일이 《새해에 드리는 글》에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현재 우리 연변지구에 민주정권이 건립된 이래 의심할 바 없이 연변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韓人들도 정부의 법령을 준수해야 하지만 또한 정부 법령의 보호도 받아야 한다. 중국국적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韓國人은 입적할 수 있고 중화민국의 국민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조선족은 중화민족 소수민족의 일원으로 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민족평등 원칙하에 조선족들

2) 周保中, 1985, 『延边朝鲜民族问题』延边朝鲜族自治州档案馆编; 『中共延边吉敦地委延边专署重要文件汇编』(1945年11月至1949年1月) 第1集, 359쪽.

이 정치, 경제 문화상에서 해방과 발전의 권리를 가지게 하며 민족 언어문자, 풍속습관, 종교신앙 등도 일률로 존중 받는다.”<sup>3)</sup> 이는 중국공산당이 처음으로 조선족을 상대로 중국소수민족 개념과 국적문제를 함께 토론하고 동시에 조선족 입적문제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자원이란 전제하에 입적하는 것을 동의한 것이다.

이렇게 중국공산당은 법적으로 조선인들의 사회지위를 인정하는 동시에 “자원”이란 원칙하에 조선인들에게 최대한 국적 선택의 여지를 준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것은 조선인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극진한 배려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중국공산당도 동북조선인들이 감정적으로 조선과 중국은 “하나의 아버지 어머니”로 여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중공연변특위서기 유준수도 “이쪽도 나의 조국이요, 저쪽도 나의 조국이다”<sup>4)</sup>라고 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조선인들의 민족감정을 존중하고 충분한 선택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실 이 시기에 중국공산당은 재만조선인들의 국적 문제에서 “이중국적”까지 고려 하였던 것이다.

물론 “이중국적”문제가 후에 실현되지는 못하였지만 중국공산당의 이런 대담한 가설은 확실히 중국공산당이 조선족국적에 대하여 최대의 관용정책을 베풀었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공산당은 토지개혁시기부터 중국공민과 조선교포 개념문제를 비교적 엄격히 구분하였다. 이로부터 많은 재만조선인들은 중국국적에 가입하고 토지소유권을 향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1949년9월, 전국정치협상회의 제1차회의에 조선족대표가 정식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것은 재만조선인들의 법

3) 董昆一. 1985, 『新年献辞』延边朝鲜族自治州档案馆编; 『中共延边吉敦地委延边专署重要文件汇编』(1945年11月至1949年1月)第一集, 8쪽.

4) 刘俊秀, 1987, 「在朝鲜族人民中间」, 『延边党史资料通讯』3쪽.

적위치를 다시 확인하고 중국경내 소수민족으로 이미 전환하였다는 것을 세상에 공포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 3. 해방 초기 사회주의건설에서 조선족사회의 발전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면서 중국조선족사회는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많은 조선족들은 토지개혁을 통해 그렇게 갈망하던 토지를 분배받고 공산당의 은혜에 감격해 하면서 더 없는 열정으로 신중국 사회주의건설에 참여 하였다.

중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던 해 1949년부터 문화대혁명이 일어나던 해 1966년까지 사회주의건설시기로 간주한다. 그리고 이 시기를 다시 1949년부터 1952년까지는 국민경제회복시기, 1953부터 1956년까지는 사회주의개조와 계획경제건설시기, 1956년부터 1966년까지는 전면적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시기로 나눈다.

우선 국민경제시기를 보면 이 시기에 중국사회는 항미원조(즉 6·25전쟁, 1950년6월부터 1953년 7월까지), 사회주의 3대 개조, 즉 농업합작화운동을 통한 농업에 대한 사회주의 개조, 수공업과 공상업에 대한 사회주의 개조 등 과정을 거쳤다.

이 시기 중국조선족사회는 적극적으로 공산당의 지시에 호응하여 모든 면에서 전 중국의 앞장에 섰으므로 모범적 사회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3년간 진행 된 항미원조에서 전선을 지원하라는 중국공산당의 호소를 받들고 2만여명의 조선족 장병들이 이 전쟁에 참가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sup>5)</sup> 다음 사회주의 개조와 건설시기에서도 중국조선족들은 매우 적극적이었다. 신중국 초기 이른바 농업합작화운동이란 각종 호조와 합작이란

형식을 빌어 사유제를 바탕으로 한 개체농업경제를 공유제를 바탕으로 한 농업합작경제로 개조하는 과정이다. 이것을 또 “농업집체화”라고도 부른다. 농업합작화운동은 우선 호조조란 형식으로부터 출발하고 나중에 초급합작사, 고급합작사란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1951년, 연변에서는 김시룡이 중국공산당의 호소를 받들고 동북지역에서 첫 초급농업사를 건립하였다. 그러자 1952년에 동북인민정부주석이었던 고강은 이 경험을 배우라고 동북 각 지역에 호소하였다. 여기서 힘을 얻은 김시룡은 1953년에 더 나아가 고급농업사를 건립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중국에서 유명한 새벽집단농장이다. 고급농업사는 토지에 대한 보수를 취소하고 농민개인의 말, 소와 농기구를 값을 쳐서 집단소유로 하는 것이었다. 사실 이런 고급농업사는 당시 농촌의 실재를 떠났으며 수 많은 후유증을 남겨 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이 시기 김시룡은 중국농촌에서 호조합작의 선구자 역할을 한 것만은 분명하였으며 조선족농촌의 사회주의 건설은 다른 지역보다 앞장서 실현되고 있었다.

1956년부터 시작되는 전면적인 사회주의 건설에서 중국조선족사회는 정치운동에 의해 많은 피해를 보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중국은 1957년 여름부터 반우파투쟁, 1958년 봄부터 민족정풍운동을 시작하였다. 결국 이 정치투쟁에서 전국적으로 55만명에 달하는 민주인사와 우수한 학자들이 “우파”라는 모자를 쓰고 평생 깊은 상처를 받게 되었으며 그 가운데 상당한 조선족 지식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1957년, 전국적으로 반우파투쟁이 시작되자 그해 7월 7일, 중공연변주위 기관지인 《연변일보》는 “각족 인민들은 꺾기하여 우파분자들의 진공을 격퇴 분쇄하자”라는 테마로 사설을 발표하였다. 이어 그해 9월 1일, 《연

5) 『창업』-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6-(1994, 민족출판사) 77쪽.

변일보》는 또 다시 “누가 연변에 우파가 없다고 하는가?”라는 사실을 발표하여 연변에서 이른바 반우파투쟁을 추진하였다.

결국 이 시기 어처구니 없는 반우파투쟁에 의해 저명한 조선족 의학교수 정규창 등 수 많은 조선족지식인들이 우파분자 반혁명분자로 공개지명되고 이른바 그들의 반당반사회주의 언행을 비판 적발하는 정치운동이 끊임없이 전개되어 이들은 평생 고달픈 인생을 보내야만 하였다.<sup>6)</sup>

특히 이렇게 시작된 조선족사회의 반우파투쟁은 수많은 민족간부와 지식인들에게 우파란 죄명을 씌워 놓았는데 그 과정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었다. 어떤이들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술을 마시면서 우스개소리를 한 것이 죄가 되어 우파분자의 감투를 쓰게 되었고, 어떤이들은 당시 소련공상당 총서기 흐루쇼브가 반대머리란 말을 일본어로 “계가 삼뽕”(털 세대)라 한 것도 역시 “위대한 사회주의국가의 수령을 모독한” 죄가 되어 우파로 몰리게 되었다.

또 어떤 이는 외국의 아나운서가 방송을 잘한다고 말한 것도 이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숭배”라고 하면서 우파분자로 딱지를 찍고 마구 투쟁을 하였다. 더 우수한 것은 반우파투쟁은 또 위로부터 아래로 우파분자를 얼마 잡아 내야한다는 지표가 하달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기관, 단체에서는 이 지표를 완성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해 트집을 내 이른바 우파분자를 잡아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많은 조선족 학자, 교수, 과학자, 작가, 기자, 연예인들이 우파분자로 몰리게 되었던 것이다.

돌이켜 보면 우파분자 감투를 쓴 사람들의 운명은 매우 비참하였다. 그들 대부분 우수한 지식인, 정치인이었지만 우파분자란 감투 때문에 모든 정치 권리를 박탈당하고 이른바 “5인소조”<sup>7)</sup>의 감독하에 농촌아니면 공장에 내려

6) 『풍랑』-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7(1994, 민족출판사) 117쪽.

7) 이른바 “5인 소조”란 우파분자들의 문제를 다루고 그들을 감독하기 위하여 구성된 전문적인 기구임.

가서 강제노동을 하면서 “사상개조”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조선족지식인 우파분자들은 대부분 농촌에 가서 농민들의 감독하에 강제노동을 하였고, 또 일부사람들은 집단적으로 부식품<sup>8)</sup>기지에 가서 강제노동을 하였다. 더욱 고달픈 것은 일단 우파분자란 감투만 쓰면 그 때부터 사회적으로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본인과 그 가족들에게 차려진 것은 사회적인 멸시와 학대뿐이었다.<sup>9)</sup>

물론 중국 문화대혁명이 결속된 후, 중공중앙에서는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기 위해 우파분자란 감투를 벗겨 주었다. 그러나 이 때 그들은 이미 반우파투쟁과 문화대혁명속에서 거의 청춘을 보내고 인생황혼에 들어 서는 시기여서 조금 늦은 감이 있었다.

반우파투쟁에 이어 1958년 봄부터는 또 민족정풍운동이란 정치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또 많은 조선족간부들이 지방민족주의란 누명을 쓰고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 사실 당시 중국 다른 지방에서는 정풍운동을 진행한 상황이고 중공중앙의 지시는 “단결의 염원으로부터 출발하여 비판과 자기비판을 거쳐 새로운 단결을 도모하는” 방침을 제정하였지 민족정풍을 진행하라는 별도의 지시가 없었다.

그러나 연변지방에서는 이상하게도 이 정풍운동이 지방민족주의를 반대하는 운동으로 변질되어 조선족간부들이 그 주요 상대가 되었다. 이 원인을 따져 보면 이는 당시 위의 지도층 일부 사람들가운데 조선족에 대한 선입견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연변지방민족주의란 어떤 표현인가? 요약한다면 아래와 같은 6가지 표현이다. (1) “자치구역 확장론”이다. 명목적으로 연변조선족자치구역을 확대하며 자치구역

8) 여기서 “부식품기지”란 50년대 말 60년대 초 부식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장과 기관단체에서 농작물을 심거나 가축을 기르는 곳을 말한다.

9) 1978년, 중공중앙 제11기 제3차전원회의이후 우파분자로 지목되었던 조선족간부와 지식인들이 비로서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었다.

의 행정적 지위를 높이려는 것, (2)조선족들의 “민족우월론”이다. 조선족간 부들은 자치기관에서 한족 혹은 다른 민족의 간부가 책임자로 되는 것을 우려한다는 것, (3)조선족 “민족특수론”이다. 즉 본 민족의 이익을 위해 다른 민족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 (4) 조선족 “민족동화론”이다. 민족동화를 방지한다는 미명하에 한족과 조선족을 분리시키려는 것, (5) “민족자치론”이다. 이를 위해 연변에서 조선족 당원을 더 많이 발전시켜 민족자치를 지키려는 것, (6) “多祖國論”이다. 조선족들은 조국문제에 있어서 “다조국론”, 즉 제1조국, 법률조국, 무산계급조국, 혈통조국 등을 조작하여 민족분리주의를 고취하는 것 등이다

이런 지방민족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1958년 4월 17일, 당시 연변주위부서 기인 김명한이 자치주당위를 대표하여 이른바 “지방민족주의를 반대하고 민족단결을 강화하자”라는 정치동원보고를 한후 민족정풍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운동은 연변에서 1960년초까지 근 2년동안이나 진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연변지역의 많은 조선족 간부와 지식인들이 또 다시 정치풍랑속에 휘말리게 되었다. 혹독한 정치압력과 투쟁에 의해 이들은 민족문제에 있어서의 자신의 “착오적” 입장과 언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렇지만 결국 정치적 박해는 면치 못하였다. 어떤이들은 지방민족주의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지명비판을 받았고 어떤이들은 지방민족주의분자란 감투를 쓰고 우파분자와 똑 같은 역경속에서 거칠고 고달픈 인생을 살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처럼 조선족사회가 정치적으로 민족정풍에 의해 몸부림치고 있을 때, 1958년 중공중앙 제8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제출한 “열의를 다 내어 앞장을 다투며 많이 빨리 훌륭하게 경제적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란 사회주의 건설 총노선에 의해 조선족사회는 이와 더불어 진행되는 대약진운동과 인

민공사회운동속에서 경제적인 파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른바 사회주의 총노선은 중국의 경제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객관적인 경제발전 법칙을 무시한 전형적인 중국공산당의 좌경 노선이었다. 중국조선족사회는 이런 대약진의 물결속에 휘말려 짧디짧은 몇 달동안의 심경고조, 강철고조, 수리고조에 의해 술한 참패상을 남기고 말았던 것이다. 게다가 조선족사회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1959년부터 1961년까지 중국에 덮친 심한 자연재해를 입어 천재와 인재의 이중재해 때문에 말하지 못할 어려운 생활을 간신히 유지해 왔다.

그리고 인민공사 설립부터 시작하여 1980년대까지 20여년간 줄곧 평균주의와 “공산풍”에 시달려 왔던 것이다. 더욱이 인민공사는 농민들의 의지를 이반한 조직행정형태로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농촌발전에 관한 사업조례를 하달하여도 농촌에서는 예상대로 원만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결국 이런 원인때문에 80대년초에 이르러 인민공사는 가정도거리생산책임제라는 새로운 형태에 그 자리를 내주고 해체되고 만 것이다.

#### 4. “문화”대혁명에서 조선족사회의 수난

1966년 5월부터 1976년 10월까지 10년간 지속된 “문화대혁명”은 중국사회와 여러 민족들에게 막대한 재난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조선족들도 그 피해를 피할 수 없었다.

연변에는 1966년 6월에 “문화혁명영도소조”가 나오고 7월에는 당시 자치주부주장 조룡호가 인솔하는 문화혁명공작대가 연변대학에 진주하였다. 8월 하순, 북경, 대련, 할빈 등지에서 공부하던 조선족대학생들은 “혁명적 연계”라는 것을 맺으려 연변에 오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이들을 지지하는 연변대

학의 일부 교직원과 학생들은 연변에서 첫 대중반란조직인 “8·27혁명반란단”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반대하는 학생과 교직원은 “혁명반란단”을 설립하고 후에 “홍기전투련군”(홍련이라 약칭)으로 그 이름을 고쳤다.

“8·27혁명반란단”은 설립된 후, 8월 30일 군중집회를 열고 당시 자치주 부주장 조룡호, 연변대학 당위서기 이희일 등 14명 간부들을 끌어 와 고깔 모자를 씌우고 투쟁대회를 열었다. 그리고 연변대학의 모든 권리를 접수한다고 선포하고 학교의 모든 시설은 학생들이 점령하였다.

이렇게 연변대학은 연변에서 맨 처음 반란조직이 나온 곳이기에 실제상 연변의 문화대혁명 중심이며 책원지로 되었다. 연변대학의 영향으로 대중반란조직은 연변 각 지의 대,중학교와 공장, 기업, 기관들에서 육속 조직되었으며 연변의 형세는 매우 혼란해졌다. 연변 각지에서는 이른바 “집권파”들에게 각종 모자를 씌우거나 얼굴에다 먹칠을 한 후 징을 치게 하면서 인신 모욕을 가하였다.

바로 이 시기, 모택동의 조카인 모원신이 1967년초에 할빈군사공정학원 홍색반란단의 몇몇 학생들을 이끌고 연변에 왔다. 그는 “8·27”조직만이 진정한 반란파가 아니니 정돈해야 한다고 하면서 진정한 좌파는 당시 연변조선족자치주 주장이며 주당위서기인 주덕해를 끌어 내야 한다고 하였다. 모원신의 이런 작간으로 “8·27”반란조직은 분열되고 연변에는 “홍색반란자혁명위원회”(홍색으로 약칭)와 “노동자혁명위원회”(로력이라 약칭)란 새로운 반란조직이 생겼다. 이들은 당시 연변지역의 주요 간부인 주덕해, 요훈, 전인영을 보호하느냐 아니면 타도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심한 갈등을 빚었던 것이다.

이들은 연길에서 저마다 자신들의 통제구역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접경 지역에서 잦은 충돌을 빚었다. 그러자 이들은 현대무기를 갖추고 상대방을 진압하려 하였으며 그 결과 연길을 포함한 연변지역에서 총싸움까지 일어

나 많은 사상자가 나타났다.

사실 조선족들이 정치적으로 더 심한 상처를 입은 것은 1968년 4월부터 시작된 이른바 “계급대오 정리학습반”이었다. 이 학습반은 각 종 형벌을 다 써 가면서 이른바 “외국간첩”을 붙잡아 냈는데 조선족들은 거의 다 이른바 “남조선특무”로 몰리웠다. 예컨대 연변자치주 사법계통의 학습반에서 175명의 조선족 검찰관이나 경찰들이 “남조선특무”로 몰리웠는데, 이는 전 연변자치주 사법계통 조선족검찰, 경찰 총수의 70%를 차지하였다. 그중에서 12명은 학습반기간에 구타에 의해 죽었으며 82명이 종신불구자로 되었다.<sup>10)</sup> 물론 한족들을 상대로 “지하국민당”을 잡아 내는 운동도 있었지만 실제로 여기에도 많은 조선족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계급대오를 정리하는 운동가운데서 붙잡혀 나온 이른바 “계급의 적”들은 연변에서만 하여도 수만명에 달했고, 맞아 죽은 사람, 불구자로 된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이 근 2천명에 달했다.

이들은 1978년에 이르러 중공중앙 제11기 제3차전원회의가 있는 뒤에야 비로소 모두 명예를 회복하였다.

## 5. 중국개혁개방정책속에서 조선족사회의 변화

문화대혁명이 결속된 후, 중국조선족농촌사회는 중국에서 개혁개방, 특히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면서 격변기를 겪는다. 1976년 중국정부는 문화대혁명을 결속지은 후, 집단농업체제에 부분적인 개혁정책을 도입하여 소규모 집단이나 개인적인 농가 혹은 개인 單位의 생산책임제가 실시하였고, 鄉鎮企業의 설립도 허용하였다. 농촌에 대한 이런 일련의 개혁정책은 생산량을

10) 『풍랑』, 306쪽.

높이고 도농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지만, 농업집단농업체제의 해체로 농촌에서는 모든것을 스스로 해결하여야만 하였고, 결국 이것이 가족 구성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많은 농민들이 대도시나 해외로 이동하는 추동력으로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조류의 흐름을 타 중국조선족들도 많은 경제활동을 하였는데 그 과정을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1980년대 중반부터 鄉鎮企業을 창설하는 흐름을 타 조선족지역에도 소형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났다. 이 시기 성공한 대표적인 조선족기업인은 창녕그룹의 석산권과 흑룡강성민족경제개발총회사 최수진이었으며, 이들은 당시 조선족사회에서는 물론 중국사회에서도 성공한 사영기업가로 널리 알려졌다. 기업 설립 흐름은 조선족이 전통적인 농업생산에서 벗어나 산업생산 쪽으로 이동하고 빠른 경제·사회발전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만, 거시적 환경에서나 자체적인 실력에 있어 한계가 컸기에 결국마지막까지 성공하지 못하였다.

둘째는 이와 비슷한 시기에 일어 났던 장사 흐름이다. 1980년 전후하여 중국에는 농촌의 여유 노동력과 도시지역 취업대기 인원의 증가가 사회의 큰 문제로 부상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자영업(또는 個體戶라고 지칭)을 권장하였으며, 이로부터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상업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조선족들도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데, 민족전통 음식 장사를 위주로 여성들이 주체가 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셋째는 1990년대 초부터 시작한 중국 관내와 연해 지역으로의 진출인데, 이것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였다. 조선족들의 관내와 연해도시로의 본격적인 진출은 한국 기업들의 대 중국투자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초반부터였다. 한국기업들의 대량 진출로 조선족들이 자신들의 언어·문화우세를 발휘하여 취직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됨으로써 그간의 정보와 기회 부족으로 막혀있었던 도시진출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계기로 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적응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가지고 도시로 진출할 수 있었다.

넷째는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로의 진출 붐이다. 사실 1970년대말기 홍콩을 통한 조선족들의 한국방문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발전상이 조선족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약장사를 통해 짬짬한 수입을 올리다가,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단속이 심해지자, 아예 한국에서 취업하여 중국 국내에 비하여 엄청 높은 수입을 올렸다. 또한 이런 정보가 중국조선족사회에 전해지자 취업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조선족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족들의 이런 한국진출은 현재까지 줄곧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 한국 서울 구로구 가리봉 시장일대는 ‘중국동포타운’으로 불리울 정도로 조선족들이 밀집되어 있다.이제는 진출지역이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계 각 국으로 퍼져가고 있다. 조선족의 해외 진출은 높은 경제적 수입을 가져다주었고, 안목과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6. 맺는 말

위에서 광복 후와 해방 후, 중국조선족들이 어떤 시련을 겪어 왔는지 그 역사의 흐름에 따라 살펴 보았다. 광복 후, 100여만의 재만조선인들이 만주에 계속 잔류하게 된 것은 그들의 소원에 의한 것이다. 이들은 광복 후, 만주지방 정치토비들의 많은 박해도 있었지만 이를 무릅쓰고 중국공산당을 따른 것이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하자 이들은 또 중국공산당의 호소를 받들고 사회주의 건설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연속되는 각종

정치투쟁은 조선족사회에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특히 1966년부터 시작된 “문화대혁명”은 중국조선족사회에 전례없는 충격을 주었고 또 내부 분열도 가져다 주었다. 이런 정치투쟁은 물론 중국공산당이 추진한 사회주의 건설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민족은 왜서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스스로도 반성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행히도 중국은 1978년 중공중앙 제11기 제3차전원회의가 있는 후 본격적으로 지난 날 그릇된 역사를 시정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족사회도 이 봄바람을 타고 다시 화목을 이루고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기 노력하였다.

개혁개방속에서 우리 민족은 또 다시 그 잠재력을 과시하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우리 민족은 그 어떠한 어려움도 슬기롭게 극복하였기 때문에 조선족사회 미래에 대한 지나친 우려는 불필요한 것이다.

주제어: 재만조선인, 조선족, 재중동포, 개혁개방

투고일: 2008년 8월 21일, 심사개시일: 2008년 9월 25일, 게재확정일, 2008년 11월 25일

■ Abstract ■

The problems of Koreans in Manchuria before and after of  
the Liberation Period

Sun Chunri

Nationalist Government didn't grant the right of permanent residence to Korean in Manchuria. however, Chinese Communist Party considered them as one of the Minority Societies. In the result, Chinese people of Korea could live in northeast of chinese soviet area. Taking part in constructing the nation, they could progress when PRC was founded. But the leaders of Chinese people of Korea were heavily damaged by political campaigns, especially, the Chinese Cultural Reveolution and then it caused disaster to Chinese people of Korea. In spite of this calamity, society of Chinese people of Korea displayed their potential and expected development after China performed China's Reform & Open-Door Policy.

**Key words :** Manchuria, Korean-Chinese, Korean in Manchuria, Minority Societies, the Chinese Cultural Reveolution, China's Reform & Open-Door Policy